

페이즐리 솔 디자인에 관한 역사적 고찰 -카슈미르 솔을 중심으로-

김희선

한양여자대학 섬유디자인과 부교수

A Historical Study on the Paisley Shawl Design -Focus on Kashmir Shawl-

Hee-Sun Kim

Associate Prof., Dept of Textile Design, Hanyang Women's College
(2005. 10. 11. 접수; 10. 25. 채택)

Abstract

This paper is to study about paisley shawl and paisley motif to focus on Kashmir shawl. Kashmir shawl and paisley shawl of Europe can be identified by the use of 'pine cone' motif. Early 19th Europe textile manufactures began imitating the Kashmir shawl, the motif began to be called 'paisley', after Paisley, Scotland, one of the largest producers of imitation Karshmir shawls.

This study is to analyze on origin of shawl and paisley motif at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main issues are to study on organization of the Kashmir shawl industry, weaving technic and producing process, development of motif, change of size and border design of shawl, difference of Woven Kashmir shawl, Patchwork shawl and Arzni shawl, causes of decline to shawl industry, differences of between Kashmir and European shawl etc..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help to understand correct and accurate information, knowledge of paisley motif and paisley shawl.

Key Words: Paisley Shawl(페이즐리 솔), Paisley Motive(페이즐리 모티브), Kashmir Shawl(카슈미르 솔), Butas(부타 꽃)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설 틈 없이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은 빠르게 발전하는 최첨단 과학기술과 정보화 기술을 활용하여 편안함과 효율성을 높인 패션문화를 추구하고자한다. 또한 현대인들은 전쟁과 테러, 이

상기후 등으로 늘 위협받고 있는데, 현대사회에 만연한 이와 같은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본능적으로 보호하고 싶어 한다. 본능적 보호심리는 well-being과 self therapy의 추구로 나타나며,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과거로의 회기' 또는 'Naturalism'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획일화와 대중화에 질린 현대인들은 희소성과 독특함을 나타내고자하는 욕구가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심리는 럭셔리 추구와 반영된 다양하고 독특한 타문화에 대한 동경이 에스닉 이미지(ethnic image)의 추구로 나타난다.

현대패션의 특징을 요약하면 아이러니하게도

Corresponding author ; Hee-Sun Kim

Tel. +82-19-449-2853, Fax. +82-2-2290-2438

E-mail : naklee@zaigen.co.kr

‘현대의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패션문화’와 이에 상반되어 보이는 ‘과거로의 회귀, 자연으로의 회귀’가 동시에 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경향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다양한 문화권의 민속복식 및 텍스타일의 디자인 요소가 세계 패션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Key Word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문화권의 독특한 타문화적 디자인특징과 기술적 지식을 습득하여 텍스타일 및 패션 디자인에 활용하는 것이 이 시대의 요구이다.

인도는 17세기에서 19세기 동안, 거대한 양의 텍스타일을 세계도처에 수출했다. 인도 텍스타일의 영향은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친즈(chinz), 캘리코(calico), 덩가리(dungaree), 깡엄(gingham), 카키(khaki), 마드라스(madras), 파자마(pyjama), 새쉬(sash), 시어셔커(seersucker), 숄(shawl)과 같은 다수의 텍스타일 용어의 기원이 인도와 관련 있는 것으로부터도 짐작할 수 있다¹⁾.

인도의 상품 중 유럽 패션을 주도했던 것 중 하나가 인도의 북쪽, 히말라야 산이 둘러싸고 있는 카슈미르 지역에서 생산된 솔이었다. 18세기 후반 유럽의 여성들은 빛나는 색상과 동양의 신비로움을 발하여 주는 듯한 솔방울 모티브를 지닌 인도의 솔을 발견하게 되었다. 1775년경부터 1870년경까지 인도의 카슈미르 솔은 유럽여성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였는데, 카슈미르 솔은 여성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이었다. 이 솔은 원래 동인도회사의 근무자, 인도에 파견된 외교관과 선장들 또는 여행객들이 선물용으로 그들의 고국으로 가지고 갔으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솔 패션의 붐이 일어났다. 이집트에 주둔하였던 나폴레옹 군대의 장교들도 그들의 부인과 애인에게 솔을 선물로 보냈으며, 나폴레옹의 아내인 조세핀 왕비는 무려 400여점의 카슈미르 솔을 소유했다고 전해진다²⁾. 카슈미르 솔은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따라서 이 솔은 매우 비쌌는데 그 시대의 가격은 오늘날의 밉크코트의 가격과 유사하였다고 한다³⁾.

유럽의 제조업자들은 소비자들의 거대한 요구를 감지하여, 유럽의 몇몇 도시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카슈미르의 솔의 모조품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카슈미르에서 제작된 솔과 유럽에서 모방된 솔은 ‘솔방울 형태’의 모티브의 사용에 의해서 동일시되어졌는데, 유럽의 카슈미르 솔 모조품 생산지 중 하나였던 스코틀랜드의 ‘페이즐리’ 지방에서 거대한 량의 생산이 이루어진 후에 솔방울 모양의 모티브는 ‘페이즐리’라고 불리기 시작했으며, 솔 이름 역시 ‘페이즐리 솔’로 불리게 되었다⁴⁾.

현대 패션에 활용된 다양한 에스닉 이미지의 디자인 가운데, 인도 카슈미르 솔의 주요 문양인 페이즐리 모티브는 품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클래식한 문양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페이즐리 모티브는 식물문양을 토대로 디자인된 것이므로 자연 친화적인 감성을 나타내기 위해 자주 사용되며, 추상적 형태로 발전된 페이즐리 모티브는 화려하고 신비로운 이미지를 자아내기 위해 사용되는 등 다양한 감성을 나타낼 수 있는 매력적인 모티브이다. 따라서 현대의 섬유예술가나 텍스타일 디자이너들은 과거에 디자인된 페이즐리 모티브 형태를 그대로 모방하거나, 현대적으로 변화시켜 다양한 패션 제품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1968년에 런칭한 이탈리아의 유명 브랜드인 ‘에트로(Etrot)’가 다양한 패션아이템의 주요 모티브로 사용함으로써 더욱 사랑받고 있다.

페이즐리 문양으로 장식한 ‘페이즐리 솔’은 카슈미르 솔, 파시미나 솔, 캐시미어 솔 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솔 역시 여전히 세계여성들이 소유하고 싶어 하는 패션 아이템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화권의 독특한 타문화적 디자인의 기술적, 예술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요구의 일환으로, 과거로부터 현대까지 패션상품 디자인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페이즐리 디자인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페이즐리 모티브나 페이즐리 솔에 대해 언급한 자료는 많지만 무엇이 정설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다양하며, 이에 대해 학문적으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사료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페이즐리 문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도북부의 카슈미르 지방에서 생산된 카슈미르 솔과 그를 모방한 유럽의 솔에 대해 역사적으로 고찰해 봄으로써 ‘페이즐리 문양’과 ‘페이즐리 솔’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자료를 제시하고자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방법과 연구내용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인도의 카슈미르 숄과 유럽에서 모방한 페이즐리 숄 그리고 페이즐리 문양과 관련된 국내외에서 출판된 논문과 전문서적, 인터넷 자료 등을 분석한 문헌조사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론적 배경에서 숄의 기원과 페이즐리 문양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본문에서는 페이즐리 숄에 관한 역사적 고찰으로써 카슈미르 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카슈미르 숄산업의 시작과 카슈미르 숄의 재료, 제작 방법 및 제작과정, 카슈미르 숄에 표현된 문양의 변화, 19세기 카슈미르 숄의 크기 및 디자인의 변화, 제작방법이 다른 카슈미르 숄 및 카슈미르 숄 산업의 쇠퇴 요인 등을 분석 제시하였다. 그밖에, 유럽에서 제작된 페이즐리 숄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카슈미르 숄과 유럽의 페이즐리 숄의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이론적 배경에서는 숄의 기원과 페이즐리 문양의 기원 등을 살펴보려고한다.

1. 숄의 기원

영어의 ‘숄(shawl)’은 페르시아어인 ‘shal’로부터 유래하였는데, ‘shal’은 원래 특별한 의복 아이템이라기보다 직조된 옷감의 종류를 의미했다. 전통적 풍습으로 ‘shal’은 스카프, 터번 망토, 및 침대덮개로도 사용하였다고 한다. ‘shal’의 특별한 특징은 재료가 우수한 품질의 울 또는 그 밖의 다른 동물의 플리스(fleece)였다는 점이다.

이탈리아 여행가인 ‘Pietro della Valle’은 1623년경에 쓴 그의 글에서 “페르시아에서는 숄

을 주로 허리띠(girdle)처럼 허리에 둘러 입는데 반해, 인도에서는 보통 어깨에 둘러서 휴대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인도에서 숄은 원래 남성의 의복이었다. 특히 17세기 후반 남성들은 추운계절에 커다랗고 렉서리한 이 카슈미르의 shal을 그들의 어깨에 장식용으로 사용하였으며, 북인도와 중앙아시아 도처에 무역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동시대의 초상화의해서도 확인되는데, 이것은 인도가 장식적 숄의 본고장으로써 주장될 수 있는 여지를 준다⁵⁾⁶⁾.

2. 페이즐리 문양의 기원

카슈미르 숄에 표현된 대표적인 숄방울 형태의 문양을 부르는 용어는 다양했다.

젤럼 강의 굽이쳐 흐르는 모습 (Jhelum: 현재 punjab주의 한 마을 이름), 주먹의 옆모양, 작은 양파(베니스에서 불리운 명칭), 페르시아의 성화, 바람에 나부끼는 사이프러스 나무, 망고 열매 (Hindu Kairy), 부타꽃(buta, 인도 어원으로 꽃을 의미함), 원뿔, 솔방울, 눈물방울(tear-drop), 올챙이, 페이즐리(paisley) 등으로 불렸다.

카슈미르의 숄 디자인에 자주 등장하는 솔방울 디자인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페이즐리 문양의 기원을 고대 바빌론 시대로 보는 것이다. 고대 바빌론에서는 이 문양이 ‘대추야자(date palm)나무의 움트는 싹’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대추야자(date palm)나무는 음식, 마실 것, 섬유 및 집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로써 사용되었으므로 그들에게는 생명나무(tree of life)로 간주 되었으며 다산의 상징이었다고 한다⁷⁾. 이 ‘대추야자의 움트는 싹 모티브’로부터 페이즐리 문양이 발전하게 되었다는 설로 가장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둘째, 6세기 경 이집트와 사산조 페르시아 시대를 기원으로 보는 설이다. 이 시대에는 휘어진 나뭇잎 모티브가 사랑을 받았는데, 그 모티브가 ‘페이즐리 모티브’의 기원이라는 것이다.

셋째, 1526년 인도의 무굴왕조를 창시한 징기스칸의 후예인 바부르(Babur) 왕의 터번에 아몬드형의 보석과 백로 깃털이 장식된 것을 보고 한직

공이 이를 ‘술방울 모티브’로 모방함으로써 유행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설이다⁸⁾.

Ⅲ. 인도 카슈미르의 솔에 대한 역사적 고찰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페이즐리 모티브가 세계적인 문양으로 발전하게 된 동기는 인도 카슈미르지방에서 생산된 솔이 유럽으로 수출되면서이다. 따라서 페이즐리 문양 및 페이즐리 솔에 대한 이해는 카슈미르 솔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도 카슈미르솔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석 제시하였다.

1. 카슈미르 솔 산업의 시작

카슈미르에 있어서 산업의 정확한 기원은 알기 어렵지만, 그 지역의 구전에 의하면 솔 산업의 시작은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설립자는 Zain-ul Abidin (AD 1420년 -1470년)인데 역사가들은 그를 카슈미르의 Akbar(위대한자)라고 불렀다.

그는 계몽된 사고를 가지고 법률과 공영 산업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시도하였는데, 그 목적의 일환으로 그는 터키와 페르시아의 직조가 들을 카슈미르에 유치시켰다. 그 후부터 카슈미르의 제직 산업이 발달하여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한다⁹⁾. 이와 같은 주장은 카슈미르 솔의 제직 방법이 인도 본토의 전통적 직조방법과 다르고 오히려 페르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제직 방법과 일치성을 가지고 있는데서 타당성이 있다.

2. 카슈미르 솔의 재료

1) 섬유재료

카슈미르 솔의 재료는 캐시미어(cashmere) 또는 파시미나(pashmina)라고 부르는 섬유이다.

파시미나(pashmina)는 페르시아어의 울이란 뜻의 ‘파시(pashm)’와 보석이란 뜻의 ‘미나(mina)’를 합성한 말로 ‘품질이 좋은 울’이라

는 의미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또한 ‘캐시미어(cashmere)’는 카슈미르(kashmir)를 지칭하는 옛날 철자법(old spelling)인데 이 용어 때문에 재료가 카슈미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종종 오해되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우븐 카슈미르 솔’에 사용된 재료는 중앙아시아와 티베트산 염소 및 히말라야 고지대에서 자라는 산양과 염소의 속 털로부터 얻었다. 즉 카슈미르에서 사용된 모든 솔의 재료는 카슈미르 근방지역에서부터 수입되었으며, 어떤 시기에도 카슈미르 지역에서 사육, 생산되지 않았다¹⁰⁾.

카슈미르에 수입된 대부분의 플리스는 두개의 등급으로 구분 되었다.

최상품은 ‘asli tus’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가축되지 않은 야생 염소나 산양의 부드럽고 섬세한 속 털로써 실크와 같이 부드럽고 따뜻했다. 일설에 의하면 봄이 다가와 날씨가 따뜻해지면 염소들은 스스로 바위와 관목에 비벼서 겨울 동안 자란 속 털을 떨어뜨렸는데, asli tus는 바위와 관목에 붙은 털을 모아 세척하고, 방적하고, 주로 식물성 염료로 염색하였다고 한다¹¹⁾.

무굴 풍설에 ‘엄지손가락의 반지를 통과하여 빼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곱고 섬세하다.’ 고하여 ‘링 솔(ring Shal)’이라고 불려진 솔의 재료가 바로 asli tus였다. 순수하게 asli tus로만 제직된 솔은 전체적으로 매우 적은 비율이었다고 한다. 높은 수입관세가 부여되었고, 그것을 채취하고, 세척하고 방적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귀한 재료였다.

2등급의 재료는 가축화된 같은 종류의 염소로부터 채취한 것이다. 그리고 이 재료는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었다¹²⁾.

2) 염료

무굴왕조 시대에는 300가지 색상으로 실이 염색되었으나 19세기 초에는 64종으로 줄어들었다. 이들 대부분은 식물성 염료였다. 쪽(indigo)으로부터 블루와 퍼플을 카르테머스(carthamus)와 샤프란(saffron)으로부터 옐로우를, 로그우드(logwood)로부터 주로 레드를 추출하였다. 그러나 심홍색을

위해서는 동물성염료인 코치닐(cochineal)을 사용했으며, 검정을 위해서는 철가루가 사용되었다. 특히하게도 초록색은 수입된 영국계 베이즈(당구대에 까는 녹색 천)나 브로드클로스를 끓여서 추출하였다고 한다¹³⁾.

이러한 염료에서 얻어지는 미묘한 색상은 달호수(Dal Lake)의 특별히 처리된 물을 사용하여 색이 바래지 않았다고 한다¹⁴⁾.

3. 카슈미르 슐의 제직 방법과 제작과정에 종사한 전문가

1) 카슈미르 슐의 제직 방법

카슈미르 슐은 직조에 의해 제직되었는데 사용된 직기는 비교적 단순했다. 옷감의 기본적인 조직은 능직이었으며, 각 모티브는 트월 타피스트리 기법으로 손으로 작업했다¹⁵⁾.

제직방법은 어떤 점에서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사용하던 타피스트리 기법과 유사하였기 때문에 서양의 텍스타일사가들은 그것을 트월 타피스트리 기법이라고 불렀다. 다른 점은 유럽의 타피스트리는 수직기를 쓰는데 반해 카슈미르 슐은 수평 직기를 사용했으며, 그것의 조작 방법은 브로케이딩 기법과 더 유사했다. 슐에 적용된 트월 타피스트리 테크닉은 전문화된 높은 기술이 요구되는 어려운 기법이었으며 많은 시간을 요했다. 따라서 정교한 디자인의 경우에는 완성되는데 18개월 또는 그 이상 걸렸다고 한다¹⁶⁾.

2) 카슈미르 슐의 제작과정에 종사한 전문가

카슈미르 슐 산업에 대해 언급한 가장 오래된 자료는 1820-1823년 사이에 William Moorcroft에 의해 쓰여진 자료로, 영국 런던의 Whitehall의 Old India Office 도서관에 필사본으로 보존되어 있다. 여기에는 슐 제작과정에서의 분업화된 노동력에 대하여 쓰고 있는데, 하나의 슐을 만드는데 종사한 전문가는 12명 또는 그 이상이었다고 묘사하고 있다¹⁷⁾.

본 연구에서는 각 전문가의 역할을 정리함으로써 카슈미르 슐의 제작 과정을 설명하고자한다.

- ① spinner: 주로 여자들이었으며, 매우 더러운 상태의 가공되지 않은 재료가 그들에게 주어지면, 섬유를 품질에 따라 두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이것을 차르카를 이용하여 2500야드 길이의 실로 방적하였다.
- ② warp-maker: 요구된 경사의 길이(3과 2분의 1 야드)로 잘라서 보통 이합사하여 원하는 두께의 경사로 만드는 일을 하였다.
- ③ warp-dresser: 경사에 풀을 먹이는 역할을 하였다.
- ④ warp-threader: 경사를 잉아에 거는 역할을 하였다.
- ⑤ pattern-drawer(aqqash): 문양을 그리는 사람으로 weaver 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이었다. pattern-drawers는 숫자가 적어서 더 희소성이 있었으며 때때로 자신의 그림에 색을 칠하기도 하였다.
- ⑥ colour-caller (tarah guru): 구체적으로 경사와 위사의 밀도와 색상을 정하는 일을 하였다. pattern-drawer가 그린 흑백의 그림을 가지고 colour-caller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작업해가면서 각각의 컬러를 결정했다.
- ⑦ pattern-master (ta' lim guru); 일종의 속기사로 colour-caller가 정한 경위사의 색깔을 weaver가 알기 쉽도록 속기로 전환하였다.
- ⑧ weaver: weaver는 모두 남자였는데, 직기를 소한 사람을 ustad라고 불렀다. 한사람의 ustad는 3개부터 300개의 직기를 소유할 수 있었다고 한다. 1821년에 쓴 Moorcroft의 기록에 의하면, 때때로 한 집에 50개 이상의 직기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적은 숫자의 직기를 소유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는 백 개 또는 그 이상의 직기가 함께 집결되었는데, 1860대에 쓰인 한 여행가의 글을 보면 “나는 카슈미르에서 가장 큰 공장 중의 하나를 조사하러 갔다는데, 기사를 300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집은 3층 집인데 바람과 빛이 잘 들어왔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그들의 책상에서 앉아있는 서기들처럼 그들의 직기에 앉아 있었다.” 고 하였다.

직기의 주인은 고용된 기사(weaver)에게 2가지의 급료방식으로 임금을 지불하였는데, 하나

는 성과급방식이었다. 즉 백개의 보빈(spool)이 경사를 지나갈 때마다 일정한 액수를 받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파트너 업체 기초된 것으로 판매 순수 이익의 5분의 1을 고용된 기사들에게 지불하는 방식이다.

weaver는 북(shuttles)대신에 가볍고 매끄러운 나무로 만든 보빈(spool)을 사용하였는데 직조할 때 직물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쪽 끝을 태워 약간 동그란 형태로 만들었다.

문양을 만들기 위해 보통 각각의 보빈(spool)에 3개의 실을 매달았는데, 그 개수는 정교한 문양의 경우 400개로부터 1500개 까지였다 고 한다. 상인이 솔의 질과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 중의 하나는 사용된 위사의 개수였다.

weaver들은 솔 제작 가장 중요한 전문가였지만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여 가난했다. 19세기 중반기 이후로는 개개의 솔에 대해 국가로부터 높은 세금이 징수되어 더 형편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많은 weaver들이 다른 도시로 탈출을 시도하였는데, 그 결과 19세기 말 카슈미르 솔 산업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⑨ dyer : 염색업자는 독립적으로 실을 팔고 사서 염색을 하는 역할을 하였다.
- ⑩ shawl-broker(mohkuns): 솔 산업에서 이익을 얻은 사람은 직기의 소유자가 아니라, 제조업자와 상인 간에 중개 업무를 하는 솔 브로커였으며 mohkuns라고 불렸다.
- ⑪ karkhanadar : 19세기 후반기에 후에 솔 산업은 한사람이 수많은 직기를 소유하여 작업하는 공장형태로 변화하였는데 이때 직기의 소유자를 karkhanadar라고 불렀다.
- ⑫ ustad (supervisor): 초기에는 직기의 소유자를 부르는 용어였으나, 후에 공장형식으로 산업의 규모가 커지자 공장의 기사들을 총 관리하는 관리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 ⑬ 기타: 솔제작의 중요한 역할인 경사를 준비하는 전문가들 외에도 완전히 분리된 그룹으로 좁은 바깥 쪽 보더 또는 가장자리의 실크로 된 경사를 준비하는 전문가가 있었다. 가장자리를 위한 실크 경사의 사용은 솔에 강도를 주기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때때로 세탁했을 때 모양이 변하거나 수축의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4. 카슈미르 솔에 표현된 문양의 변화

카슈미르 솔의 솔방울 문양과는 별개로 나뭇잎의 형태에 기초를 둔 또 다른 솔방울 타입이 비슷한 시기의 페르시아 장식 예술에 나타났다고 한다. 이 페르시아 형태는 카슈미르 솔의 문양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솔방울 문양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된 것은 그 시기의 인도 페르시아 예술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어쨌든 카슈미르 솔에 표현된 문양디자인은 인도 카슈미르 지방과 무역관계가 있었던 페르시아 및 터어키의 영향을 받았으며¹⁸⁾¹⁹⁾, 솔 유행 후반기에 제작된 솔 문양은 유럽인들의 취향이 많이 반영되었다.

따라서 카슈미르 솔에 표현된 문양은 시대에 따라 뚜렷이 변화였다. 솔의 문양을 보면 어느 시대에 유행된 디자인인지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대별 문양특성을 분석 제시하였다.

1) 1680년경의 문양 (17세기 말)

이 시기에 카슈미르 솔 디자인의 특징적 모티브는 <그림1>과 같이 뿌리를 가진 홀쭉하게 꽃이 핀 식물이었다²⁰⁾.

17세기 말의 솔 조각이 빅토리아 알버트 박물관(Victoria and Albert Museum)에 보관되어 있는데 솔의 가장자리 보더는 좁고, 보더에는 전통적으로 꽃이 핀 식물을 뜻하는 buta가 줄(열)로 나란히 배치되어있는데, 식물의 위쪽부분에 고개속인 꽃봉오리가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사진1>

이와 같은 모티브는 17세기 무굴예술(Mughal art)의 자연주의적 특징과 페르시아 꽃 장식의 우아하고 섬세함이 조합된 것이었다.

2) 1700년~1770년 (18세기 초~18세기 중엽)

18세기 초에는 단순했던 플로럴 모티브는 더 격식을 차려 표현되었다. 한 개의 식물의 가지로부터 나온 꽃의 숫자가 증가하였다.<그림2><사진2> 비슷한 시기에 뿌리를 가진 꽃으로 묘사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꽃받침이나 화병 같은 것에 담겨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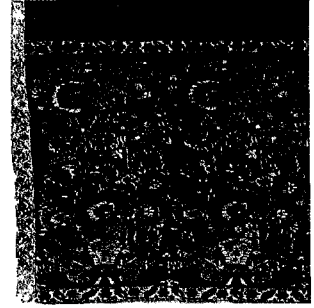
〈그림1〉 1680년경
www.textilear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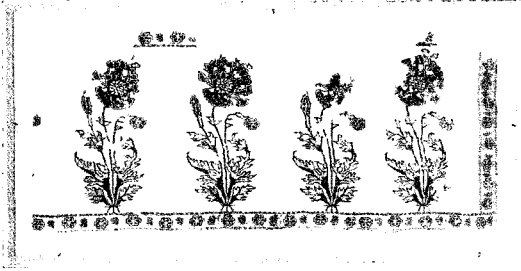
〈그림2〉 1700년-1730년
www.textileart.com



〈그림4〉 1740년-1770년
www.textileart.com



〈사진4〉 1740년-1770년대의
카슈미르 슐의 보더 문양
Textiles 5000 Years, 1993, p.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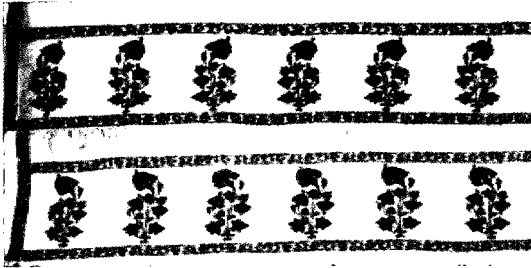
〈사진1〉 1680년, 무굴왕조 후기 카슈미르 슐의 보더 문양
Textiles 5000 Years, 1993, p.107



〈그림5〉 1770년-1800년
www.textilear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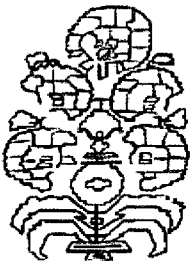
〈그림6〉 1810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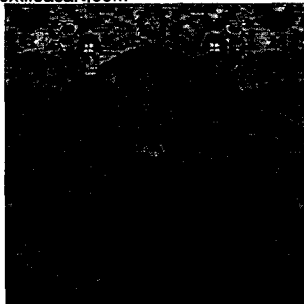
〈사진2〉 18세기 초기 카슈미르 슐의 보더 문양
www.textileart.com



〈사진5〉 18세기 말 카슈미르 슐의 보더
문양www.textileart.com



〈그림3〉 1720년-1750년
www.textileart.com



〈사진3〉 1720년-1750년대의
카슈미르 슐 문양
www.textileart.com

3) 1770년-1815년 (18세기 말 - 19세기 초)

18세기 말에 butas는 더 크게 되었고 더욱 양식화 된 형태가 되었는데 유럽에서 “카슈미르 원뿔(kashmir cone)”로 널리 알려진 끝이 구부러진 모티프가 되었다.〈그림5〉 〈그림6〉 〈사진5〉 넓게 퍼져있던 꽃 들이 함께 모여 원뿔형의 한 덩어리의 꽃 집단 모양을 이루며, 전체적인 실루엣은 바람에 구부러진 cypress 나무 같이 보인다²²⁾.

것이 함께 존재하다가, 18세기 중후반기로 갈수록 화병에 담겨있는 것이 많이 표현되었다²¹⁾.〈그림3〉 〈그림4〉 〈사진3〉 〈사진4〉

4) 1820년-1870년 (19세기 중엽- 19세기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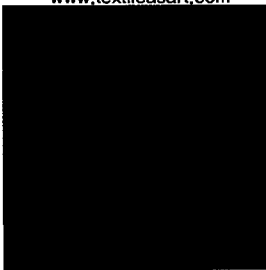
1820년경부터 카슈미르 원뿔은 꽃이 기원인 그것의 자연적인 흔적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 짧고 비교적 통통했던 원뿔모양이 복잡한 오버올(over-all) 패턴의 부분으로써 가늘고 길쭉한 원뿔 형태로 되어 순수하게 양식화 된 모양이 되었다. <그림7> <사진6>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뿔모양은 소용돌이 같은 부분으로 변형되어 추상적인 모티브가 되었다²³⁾. <그림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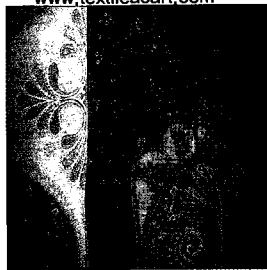
<그림7> 1820년-1830년
www.textileart.com



<그림8> 1850년-1870년
www.textileart.com



<사진6> 1820년-1830년대의 카슈미르 솔 모양
www.textileart.com



<사진8> 1850년-1870년 대의 카슈미르 솔 모양
www.textileart.com

5. 19세기 카슈미르 솔의 크기 및 디자인의 변화

우아한 문양이 있는 길고 부드러운 카슈미르 울은 솔은 18세기 후반의 유럽 여성의 드레스와 너무 잘 어울렸다. 따라서 카슈미르 솔의 모양과 크기는 솔과 함께 입혀진 유럽여성의 드레스 스타일에 따라 크기와 디자인이 변화되었다. 19세기 유럽에서 카슈미르 솔이 인기 있었던 것은 신비롭고 변하지 않는 동양의 이미지 때문이었으나 후반기로 갈수록 디자인이 유럽인의 기호에 맞게 변화되었다²⁴⁾.

19세기 유럽의 여성복은 디자인 특징에 따라 스타일을 구분할 수 있는데 학자에 따라 연대가 다소 다르게 설명되기도 하나 <표1>과 같이 분류²⁵⁾하여 카슈미르 솔의 형태변화와 크기의 변화 등 디자인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표1> 19세기 연대별 유럽여성복 스타일 분류

스타일	연도
엠파이어스타일	1800년 - 1820년
로맨틱스타일	1820년 - 1850년
크리놀런스타일	1870년 - 1890년
벳슬스타일	1870년 - 1890년

1) 엠파이어 스타일시대의 솔 (1800-1820년)

엠파이어 스타일은 하이웨스트의 흰색의 머슬린이나 비단으로 만든 슬림한 얇은 까운으로 아름다운 솔을 걸치는 것이 잘 어울렸는데, 정사각형의 네모난 것이나 스톨과 같은 긴 직사각형의 솔을 입었다²⁶⁾.

직사각형 솔의 크기는 152.4cm(5피트) X 76.2cm(2와 1/2 피트) 가량이었으며, 사각형 솔은 약 91.4cm(1야드) 내외의 비교적 작은 크기로 삼각형으로 접어서 들렀다고 한다.

바탕은 무지이고 문양장식은 가장자리 보더에만 있었다. 이때 장식된 보더의 넓이는 30.48cm(1피트) 이하로 좁았다.

가장자리 보더에는 3-4개의 컬러를 사용하여 굵이쳐 흐르는 꽃이나 솔방울 모티브로 장식되었는데, 특징적인 것은 다소 큰 플로럴 원뿔문양이었다. <사진8>



<사진8> Mme. Riviera의 초상화(Ingres작, 1805년)
www.victoriana.com

이 모티브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페르시아 예술의 사이프러스나 아몬드나무 모티브와 유사하였는데 끝이 장식리본 같이 구부러진 형태였다.

솔의 가운데 부분은 무늬가 없는 것이 많았으며, 잔가지(sprig), 또는 작은 점(pip)문양이 반복된 것도 있었다. 무늬가 있는 보더와 중심부분은 따로 제작되었다²⁷⁾²⁸⁾. 이와 같은 형태의 솔은 주로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의 유행 디자인이었다.

2) 로맨틱스타일 시대의 솔 (1820-1850년)

19세기 초기 프랑스의 조셉 마리 자카르(Joseph Marie Jacquard)가 자카드 직기를 발명하여 보급되면서 1820년의 카슈미르 솔 디자인에 영향을 미쳤다. 자카드 직기로 더 많은 컬러의 복잡한 문양을 쉽게 짤 수 있게 되자, 보더의 넓이가 급격히 넓어진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또한 1820대말이후 여성복 스타일은 드롭 솔더와 퍼프 또는 핀턱으로 장식한 슬리브로 어깨를 넓히고, 허리는 가늘게 졸라매고, 스커트는 넓게 퍼지는 X자 형태의 로맨틱 스타일이 되었다. 소매가 크게 확대되자 꼭 맞는 외투는 입을 수가 없었고 솔이 더 어울렸으며, 더욱 큰 솔을 원하게 되었다²⁹⁾.

19세기 중반은 상인들에 의해서 카슈미르 솔이 최고로 번성을 누렸다. 이때, 카슈미르 솔 디자인은 위와 같은 유럽인의 취향이 점점 요구되었다. 특히 프랑스가 주요 선동자였는데, 1850년에 최초로 프랑스 에이전트가 전통적인 디자인을 증진시키겠다는 사명을 갖고 카슈미르에 도착하기도 했다. 다음 10년간 magenta와 같은 새로운 컬러와 프랑스 취향의 패턴이 오리지널 카슈미르 디자인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1820년 이후 플로럴 원뿔은 더욱더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타입으로 변화하였으며, 패턴이 바탕을 거의 모두 덮는 페르시아인 취향의 솔이 유행하기 시작한다.

3) 크리놀린 스타일시대의 솔 (1850년-1870년)

스커트는 더 커졌는데, 1840년까지는 몇 겹의 풀먹인 하얀 페티코트 또는 말 털 페티코트가 입혀졌으며, 1856년 즈음에는 고래 뼈 또는 크리놀린 프레임으로 대체되었다. 크리놀린을 입어서 스커트가 더욱 넓게 퍼지자 겹옷으로 코트를 입기가 어려워 솔을 두르는 것이 더욱 유행하게 되었다. 솔은 더욱 커

졌으며, 모양은 사각형이나 타원형도 있었다³⁰⁾.

1840년 이후의 솔의 크기는 약 177cm×152cm 이상의 사각형이나 253cm×152cm 이상의 직사각형이 많았다. 사각형 솔은 한쪽 모서리를 일부 뒤집어서 목에 둘러지는 솔의 윗부분이 작은 접혀진 삼각형이 오도록 입었다.〈그림9〉 반면에 큰 직사각형 솔은 두개로 접고 브로치로 앞에서 여뒀는데, 크리놀린 위에 솔이 퍼져서 화려해 보이도록 입었다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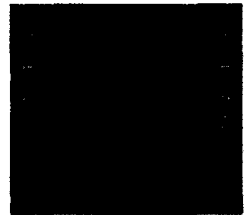
〈사진9〉는 시대에 따른 카슈미르 솔 및 유럽의 페이즐리 솔을 제시한 것이다. 19세기 후기로 갈수록 보더의 넓이와 솔의 크기가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시대에 따른 문양의 변화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그림9〉 솔 입은 모습(19세기말)
www.victoriana.com



〈사진 9-1〉 18세기 말-9세기 초, 카슈미르 솔(280*129cm)



〈사진 9-2〉 19세기 초, 프랑스 솔(160*160cm)



〈사진 9-3〉 19세기 중기, 프랑스 솔(350*165cm)



〈사진 9-4〉 19세기 중기, 카슈미르 솔(200*200cm)



〈사진 9-5〉 19세기 말, 카슈미르 솔(343*165cm)



〈사진 9-6〉 19세기 말, 프랑스 솔(343*165cm)

〈사진9〉 시대별 페이즐리 솔의 크기 및 디자인특징의 변화
www.textileasart.com

6. 제작 방법이 다른 카슈미르 솔

카슈미르 솔은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제작시간이 길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 가격이 비쌌다. 좀더 저렴하게 솔을 만들려는 노력으로 패치워크 된 솔과 자수로 문양을 장식한 암니 솔 등이 등장하였다.

1) 패치워크 솔 (Patchwork Shawl, Tillikar, Kani)

트릴 타퍼스트리 제작 방법으로 솔을 짜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전문화의 높은 기술이 요구되었다. 19세기 초에 솔 디자인이 더 화려해 지고 복잡한 기법이 필요해 지자 하나의 솔을 제작하는데 두개 또는 그 이상의 직기를 사용하여 나누어서 짰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의 직기에서 짤 때 18개월 이상이 걸렸던 것이 두개의 직기로 짤 때는 9개월이 걸리게 되었으며, 3개의 직기에서 짤 때는 더 기간이 줄게 되었다. 따라서 후에는 솔의 여러 부분이 분리되어 제작되었다. 나중에 이들 조각 들은 손바느질로 조합되었는데, 섬세하게 바느질 되어 이음새가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1821년에 Moorcroft는 여러 개의 직기로 나누어서 솔을 만드는 최신 방법의 솔 제작법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1개의 솔을 짜는데 보통 8개 이상의 직기를 사용했으며, 19세기 중엽 이후에는 증가된 카슈미르 솔에 대한 더 많은 유럽의 주문에 의해 생산속도를 높여야만 했는데, 따라서 후반기에는 생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조각의 숫자가 점점 많아져서 1500개의 조각을 짜기운 솔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³²⁾.

이와 같은 기법으로 만든 솔을 '패치워크 솔 (patchwork shawl)' 또는 Tillikar, Kani 라고 불렀으며, 이 기법은 중앙아시아 또는 서아시아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된다³³⁾.

2) 암리 솔 (Amli Shawl, needle worked shawl)

또 다른 솔 제작 방법이 19세기 초에 도입 되었는데, 자수기법으로 장식된 솔이었다. 이것은

암리(Amli)라고 불리 왔다.

1803년에 콘스탄티노플의 한 무역회사로부터 Khwaja Yusu라는 사람이 그들이 좋아하는 문양을 얻기 위하여 카슈미르에 파견되었다. 그는 평직물에 자수기법으로 직조된 카슈미르 솔을 도망하면, 제작 과정이 훨씬 단순하여 매우 적은 시간이 들어 이윤이 많이 남을 것으로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Ali Baba라는 이름의 재봉사의 도움으로 '직조된 솔'의 3분의 1 가격으로 첫 번째 자수 솔을 내놓았다.

직조된 솔에 비해 생산 가격이 절약됨과 동시에, 자수 솔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직조된 솔에 원가의 26%까지 부과되었던 정부의 세금을 피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놀라운 이익이 창출되었고 빠르게 자수솔 산업이 확장되었다. 암리솔의 바닥 천은 alwar라는 평직의 천이었는데, 바닥천이 완전하게 반들반들해 질 때까지, 판위에 올려놓고 윤을 내기 위해 agate(마노 또는 유리제의 구슬) 또는 cornelian(홍옥수)의 조각을 가지고 문질렀다 고한다. 그 다음에 색깔 파우더와 목탄을 이용하여 문양을 종이에서 옷감으로 옮겼다. 직조된 솔과 외양을 비슷하게 하려고 자수를 가능한 한 바닥에 납작하게 붙도록 스티치를 놓았다.

최초의 암리 솔에 놓은 자수는 덜 완벽해서 전통적인 인도 체인 스티치 작업의 외관이 도드라졌지만 그 후에 페르시아 Kirman 지방의 자수디 자이너로부터 기법을 배워 발전하였다.

암리 솔은 19세기 전반에 걸쳐서 만들어졌는데, 1830년 이후에는 직조 솔을 모방하려하지 않고 독자적인 디자인으로 발전하였다. 암리 솔의 특징적인 문양 가운데 하나는 인물상을 표현한 것이 많다는 것이다.

Abu' l Fazal의 "Iyar-i danish(지식의 특징)나 Nazami의 Khamsa (5개의 운문)과 같은 잘 알려진 인도 페르시아 문학의 이상적 로맨스를 표현한 문양을 넣었다. <사진10>

1819년에서 1859년 까지 카슈미르의 통치권을 가졌던 Tanjit Singh의 승리를 그린 문양도 있었으며, 19 세기의 후반에는 카슈미르의 수도인 Srinagar의 지도 문양을 자수한 것도 있었다³⁴⁾.



〈사진10-1〉 1830년대 자수술의 문양 〈사진10-2〉 1840년대 자수술의 문양
 〈사진10〉 인물상 문양이 들어간 카슈미르의 자수 슐
 www.textileasart.com

7. 카슈미르 슐 산업의 쇠퇴

1870년대부터 카슈미르 슐의 명성이 하락했다. 카슈미르 슐 산업의 붕괴의 요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1) 카슈미르의 직조가의 이주

유럽의 증가된 수요로 슐 산업이 융성해지자 정부는 슐 직조가에게 슐 가격의 25%에 달하는 세금을 부여했다. 정부의 잔인한 과세로 인해 직조가들은 가난하고, 무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Punjab의 Amritsar나 Lahore, Ludhiana, Nurpur, Gurdasput, Sialkot, Gujarat, Kangra, Simla 등과 같은 도시로 이주했다.

이와 같은 도시에서 제직된 슐은 카슈미르의 슐보다 질이 떨어졌는데, 이주한 도시의 물의 질이 안 좋았던 것을 이유로 들기도 하나, 그보다 더 타당한 이유는 최고의 재료를 얻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여러 세기 동안 카슈미르는 최상의 재료의 공급원을 독점하여왔다. 따라서 카슈미르로 통하는 길은 발달하였지만, 이주한 도시와 재료의 공급원인 중앙아시아나 티벳을 연결하는 길이 부족하여 좋은 질의 재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했다.

따라서 질이 떨어지는 재료를 섞어 제직하여 슐의 품질의 조악 화를 부추겼으며, 카슈미르 슐 무역이 하락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³⁵⁾³⁶⁾.

2) 버슬스타일의 유행

유럽에서는 17세기에서 18세기 말에 유행했던 버슬스타일이 다시 1870-1890년 사이에 유행하였는데 말안장과 같은 패드를 뒤 허리에 두르거나 앞은 자연스럽게 뒷부분 부분만 부풀게 한 크리놀린 빠니에를 속에 입어, 뒤영덩이 부분을 부풀게 하고 장식하여 강조한 스타일이다. 벅슬 스타일에는 슐이 어울리지 않아 카슈미르 슐의 인기가 하락하게 되었고 카슈미르의 슐 산업이 붕괴되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3) 자카드 직기의 발명과 프린팅 기법의 발달

프랑스에서 자카드 직기가 발명되자 1870년경에는 카슈미르 슐과 유사한 우븐 자카드 슐을 아주 싼 가격(1루피)에 살 수 있었다. 또한 프린팅 기술의 발달로 똑같은 모양의 패턴이 있는 프린팅 면 슐을 아주 싼 가격으로 살 수 있었다. 슐이 귀하고 비쌌을 때 여성들은 간절히 원하였지만, 누구라도 싼 가격으로 적어도 한 개쯤은 구입할 수 있게 되자 아무도 슐을 원하지 않게 되어 슐이 인기가 하락하게 되었고 이것이 카슈미르 슐 산업의 붕괴 요인이 되었다³⁷⁾.

4) 프랑코 - 프로이센 전쟁 (Franco-Prussian War)

1870-1871년 프랑스와 지금의 독일인 프로이센 간에 전쟁이 일어났다. 보불전쟁이라고도 부르는 이 전쟁은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3세가 실추된 황제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시도하였다.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 총리는 나폴레옹의 야심을 역이용하여 프로이센이 주도하는 북독일 연방에 남독일 국가들을 끌어들이어 강력한 독일 제국을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전쟁에 대응하였다. 이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했는데, 이 전쟁으로 프로이센의 독일 지배가 확고해졌으며 독일의 여러 국가들에 대한 프랑스의 영향이 종식되었고, 파리에 공화정이 선언되고 국방정부가 성립되는 개기가 되었다.

이 전쟁으로 인해 프랑스 시장이 붕쇄되자 카슈미르 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으며, 결국 카슈미르 슐 산업 붕괴의 요인이 되었다³⁸⁾.

IV. 유럽에서 제작된페이즐리 솔

카슈미르 솔의 모조품은 페르시아와 인도 본토는 물론 프랑스의 파리와 리옹, 영국의 노르위치와 스코틀랜드의 에딘버그, 글래스고우, 페이즐리 및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등지에서도 제작되었다. 특히 카슈미르 솔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유럽에서 모조솔을 생산하려는 시도가 많았다.

1784년 영국의 노르위치에서 목도리 용도로 면천에 목판 프린팅을 하였으며 1792년에는 나르는 북을 사용하여 4야드(365.6cm)길이의 정방형 직물을 제작하고 그 위에 자수하여 카슈미르 솔을 모방하였다

최초로 카슈미르 솔의 직조 형태를 모방한 것은 1790년에 스코틀랜드의 에딘버그(Edinburgh)에서였는데 다마스쿠 직기를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1792년에는 영국의 노르위치(Norwich)에서 문직기, 하네스(Harness loom)를 사용하였다.

프랑스는 1804년경부터 솔을 직조하게 되었으며 프랑스에서 발명된 자카드 직기를 사용하여 매우 우수한 디자인의 솔을 짰으며, 카슈미르 솔 디자인의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한때는 프랑스 인들이 패턴을 향상시키기 위해 카슈미르를 왕래하기도 하였다³⁹⁾.

스코틀랜드의 페이즐리는 솔 제작을 1805년부터 시작하여, 1820년경에 자카드 직기가 소개되자 여러 색의 실을 사용하여 카슈미르 솔을 더 잘 모방할 수 있게 되었다. 상인들은 해상으로 도착한 최신의 카슈미르 솔을 페이즐리에서 8일 만에 카피하여 런던으로 보냈다. 오리지널 카슈미르제품이 70-100 루피인 반면에 모조품은 런던에서 12루피에 팔렸다고 한다.

페이즐리는 노동력을 전문화시키고 매스마켓을 겨냥하여 솔을 싸게 팔도록 정책을 펼쳤다. 이에 따라, 1850년 에딘버그는 더 이상 페이즐리와 경쟁상대가 안되었으며 유럽의 솔의 중심지는 페이즐리가 되었다. 스코틀랜드의 페이즐리에서 가장 많은 상품이 제작되었으며, 그 이후로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페이즐리 모티브', '페이즐리 솔'이라는 용어가 생겨나게 되었다. 현재, 카슈미르의 솔에 관한 정보는 페이즐리 지방에 가장 많이 남아 있다.

1865년 양면을 쓸 수 있는 솔이 페이즐리에서 발명되었다. 두께가 일반 솔의 두 배인 솔이었는데 무겁고 인기가 없었다. 또한 노르위치, 페이즐리 글래스고우 등에서 프린트된 솔이 제작되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 밝고 눈부신 컬러로 프린트된 아름다운 실크 솔은 중간 또는 상류계층의 이브닝 드레스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목판 블록프린팅 기법으로 프린트했으며, 후에 롤러 프린팅 솔이 생산되었다. 수 백 만장의 솔이 대중시장을 위해 프린트되었는데 울과 면, 그리고 울과 실크 천에 프린트되었다⁴⁰⁾.

V. 카슈미르 솔과 유럽의 페이즐리 솔의 차이점

카슈미르 솔과 유럽에서 제작한 모조품 간에는 두 가지의 기본적 차이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재료와 제작 방법의 차이였다.

최상급 동물의 털로 제작된 카슈미르 솔은 자연 광택을 가졌으며 부드럽고 더 가벼웠다. 반면에 유럽의 솔은 1830년대 말 까지 울 또는 실크 밧을 실크사로 제작되었는데 좀더 무거웠다.

초기 영국 솔에 사용된 경사는 실크였다. 그리고 위사는 울 또는 실크였다. 카슈미르 솔을 제작하는데 사용된 염소 털은 강했으나, 울은 강도가 약하여 프랑스에서 울에 실크 사를 둘러서 방직한 실이 발명될 때까지 경사로 사용되지 못했다.

제작 방법도 차이가 있었는데, 카슈미르 솔은 핸드 메이드로 '트윌 타피스트리 기법'을 사용했으나 유럽은 '자카드 직기'로 제작하거나 '프린트 기법'을 사용하였다.

VI. 결론 및 요약

본 연구에서는 과거로부터 현대까지 패션상품 디자인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페이즐리 디자인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페이즐리 모티브나 페이즐리 솔에 대한 자료는 많지만 무엇이 정설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다양하여, 페이즐리 문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도북부의 카슈미르 지방에서 생산된 카슈미르 솔과 그것을 모방한 유럽의 솔에 대해 역사 적으로 고찰하여 ‘페이즐리 문양’ 과 ‘페이즐리 솔’ 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자료를 제시하고자하였다.

본 연구로부터 얻어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카슈미르 솔 산업은 15세기 초부터 시작 되었으며 페르시아와 터키 등으로부터 예술적, 기술적인 영향을 받았다.
2. 카슈미르 솔의 재료는 카슈미르 지역에서는 생산 되지 않았으며, 중앙아시아와 티벳 등지에서 사는 야생 염소나 산양의 속 털이었다. 이 털의 품질은 최상급이었다.
3. 카슈미르 솔의 제작방법은 손으로 작업한 트윌 타피스트리 기법이었는데, 어려워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했고, 완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었다.
4. 카슈미르 솔 제작과정은 분업화된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5. 카슈미르 솔에 표현된 문양은 시대에 따라 변하였다. 시대에 따른 문양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1680년경: 뿌리를 가진 홀쭉하게 핀 식물 문양으로, 위쪽 부분에 고개 숙인 꽃봉오리가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 ② 1700년-1770년: 18세기 초부터 한 개의 식물의 가지로부터 나온 꽃의 숫자가 증가하였다. 뿌리를 가진 꽃 및 꽃받침이나 화병 같은 것에 담겨있는 꽃이 함께 존재하다가, 18세기 중후반기로 갈수록 화병에 담겨 있는 것이 많이 표현되었다.
 - ③ 1770년-1815년: 한 무리의 꽃 집단이 ‘솔방울 모양’ 또는 ‘원뿔형’ 을 이루어 더욱 양식화된 문양을 이룬다.
 - ④ 1820-1870년: 꽃이 기원인 자연적인 형태를 잃어버리고 짧고 통통했던 원뿔 모양이 가늘고 길쭉한 원뿔형이 되며, 후반기에는 소용돌이문양과 같이 더욱 추상적인 모티브가 유행하였다.
6. 18세기 말 이후 카슈미르 솔은 유럽여성의 드레스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크기와 디자인이 변하였다. 19세기 초기에는 보더의 넓이가 좁았

며, 솔의 크기도 상대적으로 작았는데, 19세기 중 후반기로 갈수록 보더의 넓이가 넓어지고 솔의 크기도 커졌다.

7. 19세 초 부터 19세기 말까지, 가격이 비싼 우븐 카슈미르 솔을 대체하기 위해 패치워크 솔과 자수 솔인 압리 솔이 생산되었다.
8. 카슈미르 솔 산업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쇠퇴하게 되었는데, ‘국가에 높은 세금으로 인한 직조가들의 이주’, ‘버슬스타일의 유행’, ‘차카드 직기의 발명과 프린팅 기법의 발달’, ‘프랑코 프로이센 전쟁’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9. 카슈미르 솔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유럽에서 모조솔을 생산하려는 시도가 많았는데, 프랑스의 파리와 리옹, 영국의 노르위치, 스코틀랜드의 엔딘베르그, 글래스고우, 페이즐리가 대표적인 유럽의 생산지였다. 특히 스코틀랜드의 페이즐리 지방에서 대량생산이 이루어진 후에 카슈미르 솔은 ‘페이즐리 솔’ 로 불렸으며, 모티브는 ‘페이즐리 문양’ 으로 불리게 되었다.
10. 카슈미르 솔과 유럽에서 제작한 페이즐리 솔은 재료와 제작방법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앞으로 후속연구로서 초상화나 문헌, 그리고 실물로 보존되어있는 카슈미르 솔을 분석하여 시대별 디자인 특징을 심층 연구할 예정이며, 또한 현대 패션에 표현된 페이즐리 패턴의 특징에 관한 연구도 시도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1) Belinda, T., Orzada (1998). *Cross-cultural influences on fashion prior to the Twentieth Century*. University of Delaware, p.1.
자료검색일. 2005. 9. 20. 자료출처 <http://udel.edu/~orzada/intro19tC.htm>
- 2) Wilson, K., 박남성, 차임선 옮김 (2000). *직물의 역사*. 도서출판 예경, p.201.
- 3) Belinda, T., Orzada (1998). Op. cit., p.1.
- 4) Reilly, V. (1987). *The Paisley Pattern*. The Official Illustrated History.

- Salt Lake City. UT: Peregrine Smith Books, p.15.
- 5) Harris, J. (1993). *Textiles 5000 Years*. London: Harry N. Abrams, Inc. New York, N.Y., p.106.
- 6) Irwin, J. (1973). *The Kashmir Shawl*, p.1. 자료검색일. 2005. 9. 22. 자료출처 <http://www.textileasart.com>; Original Book: Irwin, J. (1973). *Shawls*. H. M. Stationery Office London, The Victoria & Albert Museum London.
- 7) Andews, M. (2005). *Shawls of Paisly Design*, p.3, 자료검색일. 2005. 9. 10. 자료출처. <http://www.victoriana.com/>
- 8) Wilson, K., 박남성, 차임선 옮김 (2000). Op. cit., p.202.
- 9) Ibid., p.201.
- 10) Irwin, J. (1973). Op. cit., p.3.
- 11) Harris, J. (1993). Op. cit., p.107.
- 12) Irwin, J. (1973). Op. cit., p.3.
- 13) Ibid., p.4.
- 14) Wilson, K., 박남성, 차임선 옮김 (2000). Op. cit., p.201.
- 15) Harris, J. (1993). Op. cit., p.107.
- 16) Irwin, J. (1973). Op. cit., p.2.
- 17) Ibid., pp.3-5.
- 18) 남미경 (2005). *페이즐리 문양을 응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4.
- 19) Harris, J. (1993). Op. cit., p.107.
- 20) Irwin, J. (1973). Op. cit., p.8.
- 21) Ibid., p.8.
- 22) 남미경 (2005). Op. cit., p.6.
- 23) Irwin, J. (1973). Op. cit., p.7.
- 24) Harris, J. (1993). Op. cit., p.106.
- 25) 신상옥 (1988). *서양복식사*. 수학사, p.251.
- 26) Ibid., p.261.
- 27) Irwin, J. (1973). Op. cit., p.7.
- 28) Andews, M. (2005). Op. cit., p.6.
- 29) 신상옥 (1988). Op. cit., p.273.
- 30) Ibid., p.291.
- 31) Andews, M. (2005). Op. cit., pp.5-7.
- 32) Irwin, J. (1973). Op. cit., p.2.
- 33) Wilson, K., 박남성, 차임선 옮김 (2000). Op. cit., p.202.
- 34) Irwin, J. (1973). Op. cit., pp.9-10.
- 35) Harris, J. (1993). Op. cit., p.108.
- 36) Irwin, J. (1973). Op. cit., p.6.
- 37) Andews, M. (2005). Op. cit., pp.7-8
- 38) Wilson, K., 박남성, 차임선 옮김 (2000). Op. cit., p.203.
- 39) Ibid., p.249.
- 40) Andews, M. (2005). Op. cit., pp.7-8; Frank Ames (1986). *The Kashmir Shawl*. Antique Collectors Club, UK; Monique; Levi-Strauss (1988). *The Cashmere Shawl*. New York; Harry, N. Abrams, Inc. Publishers.